

[사회]

서울지역 외고 입학 전형 중 3 2학기 기말고사 성적 요구

광주 중학생 응시조차 못할 판

서울지역 외국어고를 지망하는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올해 시험 불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주요 외고들이 올해부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를 입학전형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외고 원서접수 시기에 12월 초에야 기말고사를 치르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고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말고사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학교측에 요청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사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원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이화여자외고, 서울외고 등 서울지역 주요 6개 외고의 올해 원서접수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지원자에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또는 1학기 성적이지만 요구하던 전형방식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로 변경됐다.

광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12월 초 3~4일간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물리적으로 서울지역 외고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사일정 변경 불가 방침을 밝힌 광주M중 교장은 "교무위와 학운위를 거친 학사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오리더 서울지역 외고 전형일정이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외고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M중 3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기말고사 일정을 일주일 변경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 단 한명이라도 진학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일부 중학교는 외고 진학 준비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

들어 기말고사 일정을 조절할 경우도 있다. 당초 12월 1~4일인 기말고사 일정을 11월 20~25일로 변경한 광주 S중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돼 기말고사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S중 외에도 4~5곳 이상의 중학교가 같은 이유로 기말고사 일정을 바꿨다.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면 변화분위기가 흐려진 나머지 최대한 기말고사를 늦출 것을 공문을 통해 올해 초 각 학교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지역 외고나 다른 특목고와 달리 서울지역 외고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입학전형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지방 학생들을 배제하려는 의도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웃사랑 밤 줄기 KTF 광주네트워크본부(본부장 오성목) 임직원들은 18일 광주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과 '사랑의 집' 장애인 등 100여명과 함께 화순군 청풍면 백운리 아산에서 '이웃사랑 밤 줄기' 행사를 가졌다. KTF는 이날 수확한 밤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봉사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수능 응시자수 9년만에 증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수가 9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는 총 58만8천282명으로 지난해(58만4천934명)에 비해 3천348

명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수는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수는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수는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수는

명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수는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수는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응시자수는

날씨 정보: 한낮 더위요, 9월 19일 (음 8월 20일) 전국날씨. Includes a weather map of Korea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전남 전교조 가입률 35.3% 전국 최고

광주 31.8%로 두번째

광주·전남 교원의 전교조 가입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나라당 조진혁 국회의원이 공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교원 1만9천574명의 35.3%인 6천909명이 전교조에 가입,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율을 보였다.

광주는 1만2천388명 중 3천938명으로 31.8%를 기록,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경남 26.8% ▲충남 23.3% ▲전북 22.4% ▲울산 21.8% ▲경북 21.2% ▲서울 15.5% 순이었으며, 경기도가 11.1%로 가장 낮았다.

반면, 교총 가입 교원 비율은 충남이 56.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대전 49.4% ▲충북 48.1% ▲경북 47.5% ▲부산 45.4% 등이 이었으며, 서울이 30.1%로 가장 낮았다. 광주는 31.8%, 전남은 40.4%였다.

전국적으로는 교총에 가입한 교원이 15만7천736명으로 39.1%를 차지했으며, 전교조가 7만3천319명(18.2%),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561명(0.1%),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432명(0.1%)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무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교원은 42.5%였다.

한편, 조 의원의 자료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4개 교원단체 및 노조가 올해 4월 회비를 자동납부(CMS) 방식으로 징수하기 위해 사-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현황

Table showing membership statistics for various teacher unions and labor organizations in Gwangju, categorized by school type (Elementary, Middle, High).

Table showing membership statistics for various teacher unions and labor organizations in Jeonnam, categorized by school type (Elementary, Middle, High).

도교육청에 제출한 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삼았다. 교총의 대학 교수 회원은 제외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88고속도로 치사율 가장 높다

교통사고 100명당 20.38명이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3개 고속도로 노선 중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88고속도로의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해양부 최우철(강릉) 의원이 2003년~2007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1만4천840건의 치사율(사고로 인한 100명당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88고속도로가 20.38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평균 치사율 9.82명에 비해서도 배 가량 높고, 5년간 3천381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경부고속도

로의 치사율 12.39명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88고속도로의 경우 5년간 발생한 사고는 314건으로 경부고속도로의 10분의 1수준이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1984년 완공된 88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2차선 고속도로로 치사율이 높아 그동안 '마의 고속도로'로 불려왔으나 4차선 확장공사는 일부 구간만 시행된 채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박내영교육학) featuring exam preparation courses and recruitment information for teachers.

Advertisement for 'Haeryeong Law Firm' (해령법률경매) listing various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Auction Specialist'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listing various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